

혼계에서 승리하라

작성일 : 2013. 9. 14(토) PM 4:35

작성자 : 천영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선생님과 성자를 뜨겁게 만났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니 뇌와 몸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막에 단비와 같은 성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잠을 잤는데 꿈에서 내 혼체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남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럽고 지저분하다 하며 피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모습들을 보며
음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고 나서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음욕이 생겨
작정하고 ‘근본 된 뇌 체질을 바꿔야겠다.’ 하고
뇌에 대한 말씀을 보던 중
성자께서 깊은 영적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며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 성자의 말씀 *

뇌 영역 싸움이다.
뇌 체질 싸움이다.
나 성자가 근본으로
너희의 뇌의 체질을 하늘에 맞게 바꾸려 하니
사탄들은 나를 대적하여 너희의 뇌를
각종 불의한 것으로 자극하려고 한다.
뇌를 성자 사랑 덩어리로 만드느냐
세상 육적 사랑 덩어리로 만드느냐
너희의 뇌를 향한
사탄과 선생의 싸움이다.

(그 순간 ‘아. 전날 성자와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뇌는 선한 자극을 받았고
영적 영역이 육적 영역을 덮으려 하니
사탄이 혼계에서 나를 쳤구나.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육적 사랑 영역을 자극시켜
나의 뇌를 가지고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하는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남자들이 성자 사랑을 느껴
눈물을 흘리며 음란물을 끊으려고 해도
왜 그렇게 쉽지 않았는지 알겠어요.

바로 혼체, 혼계에서 승리해야
육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혼적 영적 싸움으로 뇌는 육계에서의 자극과
혼계에서의 자극에 동시에 다 반응하기 때문에
혼계와 혼체에 대해 무지하면
근본된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뇌 체질 또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그래서 혼체에 대해
정말 잘 알아야 한단다.
아는 만큼 행하게 되니
깨닫고 아는 것은
혼계에서 너희 혼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노라.

사탄들에게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무지다.
알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과 시련이노라.

섭리사 혼체에 대한
말씀을 전한 이유는
더욱 온전한 영 휴거를
이루기 위함이라 하였다.
사탄은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영물이다.
하지만 혼적 차원만 가도 다르다.
그들의 정체와 행위를
모두 밝히 볼 수 있다.
바로 신령한 혼체로써
수백 가지의 사탄의 울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혼체를 통해 너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계속하여 변화된
완전한 혼체를 통해
온전한 육의 행위를 기대할 수 있고
비로소 완성된 영체로써
휴거의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탄은 너무 뻔하다.
그들의 목적은
나 성자를 대적하는 삶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섭리사 전체가
‘뇌 체질’을 바꾸어
영 휴거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근본 된 문제를 바로잡는 기간이다.
이것은 뇌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론적인 말씀이 아니다.
바로 너희의 휴거를 좌우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 성자가 선생과 함께 계획적으로
불의한 것들로 굳어져 버린
너희의 뇌를 고치려 하니
사탄들도 각종 각색으로 발악을 하는구나.
나 성자가 말씀을 통해
차원을 높여 역사하고
또한 너희의 차원도 높아지니
사탄도 기를 쓰고 쫓아가 방해하는구나.

혼체에 대해 정확히 알기 전
무지하여 당하고 지은 죄를
이제는 모두 갚고
고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에게
스스로 사탄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혼체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상은 무지하여
육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육적으로만 찾으려 하나
실상 그것은 90% 이상이 바로
혼적 영적인 원인으로 인한 현상이다.

그동안은 사탄들이
차원 낮은 너희 혼체를 주관하며 살았지만
시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진정 너희는

그들의 불의한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아
이제 더욱 혼계와 혼체에 대해
깊이 깨닫기 위해 기도하여
더 이상 무지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자.
이미 나 성자는 선생과 함께
너희가 300선 온전한 휴거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주었으니
이제는 실력대로 능력대로
기도하며 깨닫고 행하기다.
너희 모두는
스스로 사탄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노라.
바로 시대 말씀이고 성령이니라.

더욱 깊이 깨닫고
혼체를 통하여 나 성자에게 오라.
살롬.